

종합·해설

한나라당 광주 첫 토론회 캠프별 평가

李 “1對4 연합공세 적절히 방어”
朴 “한반도 대운하 허구 드러나”

29일 광주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분야 정책비전대회를 마친 이명박 전 서울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 전시장 진영에서는 이 전 시장이 타 후보들의 연합 공세를 적절하게 방어한 것으로 보고 만족한다는 모습이었다.

내달 교육, 외교·안보분야서 뜨거운 공방 펼칠 듯하고 일반적인 공세만 펼치는데 그쳤다”며 “이런 상태라면 추후 토론회에서도 이 전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차분하게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자평했다. 박 전 대표 캠프측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박 전 대표의 원칙과 신뢰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설명함으로써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보여준 토론회였다”고 총평했다. 또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허구가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전달됐다고 분석했다. 원석적인 화법을 지닌 홍준표 후보도 나름대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그리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평가이며, 원희룡 후보와

고진화 후보는 후보자들의 질문이 이명박 후보에 몰리면서 기대 이하의 소득을 거두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과 19일, 부산과 대전에서 열리는 교육과 외교·안보 분야 정책토론회에서는 더욱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여타 후보들은 이날 보였던 일반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보다 날선 잭팟을 들고서 이명박 후보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



29일 오후 한나라당 경제분야 정책비전대회가 열린 광주 5·18기념문화관 앞에는 3천여명의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운집, 대선 경선주자들이 입장할 때 마다 이름을 연호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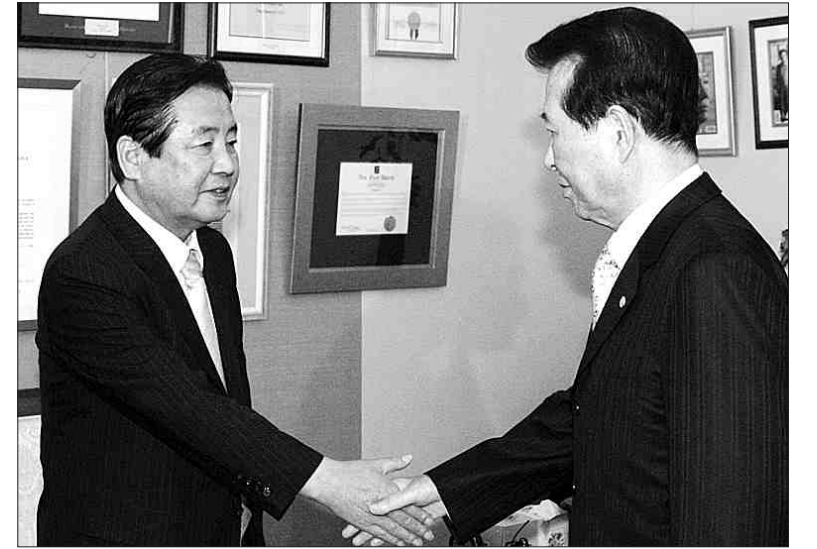
이날 TV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책비전대회를 시청한 여야 정치권은 타 후보들이 연합전선까지 형성하며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전 시장을 집중 공략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타 후보들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이명박 전 시장을 당황하게 만들기 보다는 그동안 지적해 왔던 일반적인 사항을 질문하는데 그쳐, 오히려 약점을 보완하거나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여론 인사들은 “타 후보들이 이 전 시장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의 허구성을 제대로 짚지

DJ, ‘소통합론’ 사실상 외면

박상천 대표와 면담서 범여 대통합 재강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상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소통합론을 외면함에 따라 범여권 대통합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원칙없는 대통합 수용이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표는 이날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대통합을 하면 이번 대선에서 승리가 어렵다”며 “중도개혁통합신당을 만들면 틀림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며, 설사 지지더라도 중도와 보수로 한국정치의 틀을 바꿔 건전한 양당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29일 오후 동료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또한, “중도개혁통합신당과 열린우리당 잔류 세력이 각각 대선후보를 낼 경우 11월께 후보단일화를 하겠다”고 덧붙이는 한편 “극소수의 국정실과 책임자만 제외하고 친노파던 민주노동당이면 모두 포용해서 한 나라당과 맞서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대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은 “박 대표가 연구를 많이 했다”며 “후보 단일화된 대통합이던 어느 쪽을 지지하건 반대하지 않음

며 박 대표는 후보 단일화가 틀림없이 되도록 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민주개혁세력이 이렇게까지 사분오열되긴 처음이며 국민들은 양당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 범여권 대통합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가 면담에서 DJ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았

지만 사실상 박 대표의 소통합론을 외면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처럼 박 대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이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데다 열린우리당의 2차 탈당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어 범여권의 대통합 문제는 민주당 일부 현역 의원들의 가세 여부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공기관 기사실 의무화 우리 ‘盧-DJ 제휴론’ 솔솔

양형일 의원 법안 발의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광주 동) 의원이 29일 공공기관의 기사실 설치의 의무화하고 취재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언론을 상대로 정보를 직접 공개하기 위한 시설과 기사를 작성하고 송고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취재자들이 취재를 통해 특정 언론사의 취재자에 대해 출입 통제 등 취재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했다. /임동욱기자 tuim@

친노·통합파 일부서 제기 민주당 ‘연대론은 대선 필패’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연말 대선 승리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제휴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당내 친노파와 대통합파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노무현-DJ 제휴론’은 범여권 양대 지도자적인 두 사람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통합의 기반을 형성하고 여기에 정치권 밖의 미래계 핵심세력이 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김 전 대통령이 범여권 인사들과의 연쇄면담에서 ‘대통합’을 주문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고 노 대통령이 지난 19일 광주 무등산 산행에서 통합 추진과 관련해, “대세를 거역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대세 수용론’을 펼 컸이 제휴론이 흘러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3월 이해진 친

노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내가 이쪽을 지키고 노 대통령이 저쪽을 지키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반문, 전략적 제휴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친노측 초선의원이 전했다. 노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도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민주당 10년 이상 무능과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 대통령과 DJ가 큰 흐름에서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무현-DJ 연대론은 대선 필패 카드”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유종철 대변인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으로 서민과 청년실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넘쳐나고 있는데 DJ와 노 대통령이 손 잡아대신은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대선을 현납하겠다는 구도”라며 “DJ란 맑은 물에 노무현이라는 흙탕물을 섞으면 전부 다 흙탕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

첫 토론회 이모저모 李·朴 피켓 들고 연호...장의 응원전 후끈

29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빅2’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들간 치열한 장외 대결이 뜨거웠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지지자들과 팬클럽 회원 등 3천여명은 행사 시작(오후 2시) 보다 1시간 이상 전부터 행사장 주위에 진을 치고 세대 결을 펼쳤다. 특히 행사장 인근 도로에는 서울과 경남북 등 외지 변호관을 단 30여명의 대형버스가 등장하면서 이 일대가 5시간 가까이 극심한 교통혼잡에 시달렸다. 특히 행사장 주변에는 한나라당 당원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시민들도 대거 몰려들어 과거 대선과 확실한 대조

를 이뤘다. 박 전 대표가 이날 오후 1시20분에 행사장에 도착하자 태극기와 한나라당 당기를 든 지지자들은 박 전 대표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했다. 이어 5분 뒤에 이 전 시장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켓과 태극기 등을 흔들며 이명박을 외쳐댔다. “따뜻한 서민경제, 세계 향한 무한도전”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토론회에는 강제석 대표를 비롯해 중앙당 당직자와 소속 의원, 지지자 등 수백명이 몰렸으며, 토론 도중 각 후보의 발언이

끝날 때 마다 박수를 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이 전 시장, 박 전 대표 지지자들간 한바탕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행사 시간이 임박하면서 대권 후보들이 차례로 행사장에 도착하자 각 캠프 지지자들은 피켓을 들고 각 후보들의 이름을 연호하자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을 촬영하며 제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전국의 신문과 방송, 통신사 기자 등 2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마치 대선 취재 현장을 방불케 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columns: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고매각가격, 비고. Includes details for various properties and legal notices.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training program. Includes text: '6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두기업. Advertisement for solar power projects. Includes text: '태양광발전사업 토탈 건설',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허가대행', '태양광 발전 사업비 펀드조성 컨설팅', '태양광 발전 시공 전문기업', '태양광발전 부지 매입 및 임대상담 환영', '태양광발전사업 토탈 건설'.